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23, Vol. 28, No. 3, 301-313

OPEN ACCESS

초기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 성차에 있어 학업능력 및 신체외모에 대한 자기지각의 매개효과

신 나 영†

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삶의 만족도와 자기지각에 있어 성차를 보고하였으나, 삶의 만족도의 성차에 기저하는 심리적 기제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기에 접어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에서 성차를 살펴보고 성별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자기지각이 매개하는 지를 조사하였다. 초등학교 5, 6학년 남학생 157명과 여학생 138명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 척도와 자기지각 척도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삶의 만족도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고 자기지각의 5개 영역 중 학업 역량, 신체적 외모, 운동 역량에서 자신의 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중매개분석 결과, 학업 역량과 신체적 외모가 성별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청소년기에 접어든 시점에 여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남학생에 비해 저하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자신의 학업 역량과 신체적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청소년, 성별, 삶의 만족도, 학업 역량, 신체적 외모

† 교신저자: 신나영, 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E-mail: shinny@kyonggi.ac.kr

Copyright © 2023, The Korean Society for Woman Psych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www.kci.go.kr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자신의 생활전반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뜻하며 행복을 측정하는 구성개념으로 가장 빈번이 사용되어 왔다(백수진, 임영진, 2013; Diener, 1984). 삶에 대한 만족감은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중요하다.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아동은 담배나 마약과 같은 물질을 사용할 가능성이 낮고(Lew et al., 2019), 자기통제력이 높으며(Jin & Ahn, 2019),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 문제를 덜 경험한다(Park, 2004). 청소년의 경우에도 삶의 만족도가 높으면 학업장면에서 성취 수준이 높고 사회봉사 활동을 보다 많이 참여하며 품행문제 발생 위험성이 낮다(Gilman & Huebner, 2003; Suldo & Huebner, 2006; Valois et al., 2001; Valois et al., 2002; Zullig et al., 2001).

해외 선행연구들을 통합한 최근의 메타분석 연구는 아동 및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있어 성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만족도가 다소 높았다고 밝혔다(Chen et al., 2020). 이 연구는 연령, 문화, 삶의 만족도 측정영역 등에 따라 성차의 효과크기가 다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여러 선행연구들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다고 보고하였다(고혜영, 2012; 이상희, 2014; 이예은, 2013; 임영실, 2004).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포함한 연구들은 성차를 발견하지 못했거나(강유진, 2008; 이현응, 곽윤정, 2011; 조성연 등, 2011) 여학생의 만족도 수준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조형정, 윤지영, 2015),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여학생의 만족도 수준이 남학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혜영, 2012; 이상희, 2014; 이예은, 2013; 임영실, 2004).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초기 청소년기부터 남학생에 비해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박영신 등, 2000),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에 기저하는 심리적 기제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지각(Leung & Leung, 1992; Terry & Huebner, 1995), 자기효능감(Danielse et al., 2009), 자기통제(Jin & Ahn, 2019), 낙관성(Wong & Lim, 2009) 등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과 부모와의 관계(Leung & Leung, 1992), 학업(Suldo et al., 2006) 등 환경적 요인을 보고하였다. 우리나라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외모, 학업 성적, 신체건강 등 개인 요인, 부모의 학력과 직업, 사회경제적 수준, 부모와의 애착,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와의 의사소통 등 가정 요인, 사회적지지, 친구관계, 학교생활 적응, 교사와의 관계 등 학교 요인이 아동 및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강유진, 2008; 고혜영, 2012; 김안나, 김효진, 2018; 박영신 등, 2000; 손보영 등, 2012; 연은모, 최효식, 2022; 이상희, 2014; 이예은, 2013; 이주리, 2009; 임영실, 2004; 정지영, 정혜원, 2022; 조성연 등, 2011; 조형정, 윤지영, 2015).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 중 자기지각은 청소년기에 성차가 비교적 일관적으로 관찰된 요인이다. 자기지각은 자기에 대한 의식적인 인식으로, 개인이 자신의 행동, 능력, 특성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아동 및 청소년은 학업, 대인관계, 운동, 신체적 외모, 품행 등 여러 영역에 대한 자기지각에 기반하여 자기가치감 또는 자아존중감을 형성한다(Harter, 1982). 이들 영역 중 청소년기에 성차

www.kci.go.kr

가 가장 일관적으로 보고된 영역은 신체적 외모, 운동능력, 학업능력 등이다.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자신의 신체적 외모와 신체활동 능력, 수학 능력 등에 대해 보다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반면, 읽기 능력은 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Brunett, 1996; Maiano et al., 2004). Herber와 Sipek(2005)은 초등학교 3-5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실제 수학 성적에 남녀 간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자신의 수학적 학업역량을 낮게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최근의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자신의 신체적 외모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반면, 도덕-윤리 자아존중감과 품행 역량은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entile et al., 2009). 우리나라의 5-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운동능력과 신체적 외모에서 자신의 역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hin & Shin, 2008).

자기지각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Forste & Moore, 2012; Rodriguez-Fernandez et al., 2016),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자기지각의 성차는 삶의 만족도의 성차로 이어질 수 있다. 자기지각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사회적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자기가치감과 삶의 만족도에 중요하게 작용한다(Forste & Moore, 2012; Topaloglu, 2015). 청소년과 성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지각은 삶의 만족도의 4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lacois et al., 2015). 우리나라 연구에서 또한 청소년의 자기지각이 긍정적일수록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높았고(임영실, 2004), 특히 학업성취도와 신체상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일수록 삶에 보다 만족하였다(김명자, 손은령, 2018; 유안진 등, 2005).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삶의 만족도와 자기지각에 있어 성차를 조사하거나 삶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으나, 삶의 만족도의 성차에 기저하는 심리적 기제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기에 접어든 초등학교 5-6학년생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와 자기지각에 있어 성차를 조사하는 한편, 삶의 만족도와 성별의 관계에 있어 자기지각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고 자신의 학업 능력, 운동 능력, 신체적 외모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둘째, 삶의 만족도에 있어 남녀 차이를 자기지각이 매개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경북과 전남에 위치한 2개 초등학교에 의뢰하여 학교의 동의를 받은 후 5-6학년 초등학생 295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가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참여자들에게 질문지를 배포하고 응답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설문을 시작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설문을 완료할 때까지 질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대기하였다. 설문을 완료한 참여자는 남학생이 157명, 여학생이 138명으로 총 295명이었다. 전체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11.61세(SD=.63)였고, 여학생이 11.70세(SD=.61), 남학생이 11.54세(SD=.65)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령이 높았다(t=2.10, p=.04).

www.kci.go.kr

측정도구

한국판 아동용 삶의 만족도 척도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Gadermann 등(2010)이 개발한 것을 Lim(2015)이 번안한 한국판 아동용 삶의 만족도 척도(Korean version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for Children; K-SWLS-C)를 사용하였다. 자기보고식 5점 리커트식 척도로,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행연구에서 총점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94였고(Lim, 2015), 본 연구에서는 .90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의 수준이 높음을 뜻한다.

Harter's 아동용 자기지각 척도

학령기 아동의 자기지각을 평가하기 위해 Harter(1982)가 개발한 것을 박영애(1995)가 번안한 Harter's 아동용 자기지각척도(Harter's Self 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H-SPPC)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기 및 초기 청소년의 자기지각을 평가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학업 역량, 사회적 역량, 운동 역량, 신체적 외모, 품행 등 5개 영역에 걸쳐 자기지각을 평가하고 총체적 자기가치감을 산출하여 자아존중감을 평가한다. 학업 역량은 학교 공부를 잘 수행하는지, 학교 과제를 빨리 완료하는지 등 학업 수행과 관련된 인지적 능력에 대한 지각을 평가한다. 사회적 역량은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친구로부터 인정받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등 친구관계 형성 능력을 평가한다. 운동 역량은 실외 운동 능력이나 운동 기량을 평가하고, 신체적 외모는 자신의 얼굴 및 신체 등 외모에 대한 만족감을, 품행은 자신의 행동방식에 대한 만족감을 평가한다. 각 영역별로 6문항씩 총 3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1-4점)로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역량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뜻한다. 선행연구에서 하위영역별 내적 일치도 계수는 .71~.81이었고(박영애, 1995), 본 연구에서는 학업역량 .75, 사회적 역량 .77, 운동 역량 .75, 신체적 외모 .76, 품행 .59이었다.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27.0을 사용하였다. 성별은 여학생을 '0', 남학생은 '1'로 코딩하였다. 남녀 간에 연령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t*-검증을 실시하였다. Pearson correlation analysis를 통해 측정변인들 간 상관을 조사하였다.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연령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측정변인의 성차 분석과 매개효과 분석시 연령을 통제하였다. 삶의 만족도에서 성차를 살펴보기 위해 ANOVA를 이용하였다. 자기지각 영역에서 성차를 살펴보기 위해 MANOVA를 수행하여 전반적인 차이를 살펴본 후 ANOVA를 통해 각 영역별 성차를 조사하였다. 성별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있어 5개 자기지각 영역들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Process macro 모형을 사용하여 다중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Preacher & Hayes, 2008). 다중매개모형은 독립변인(성별)이 종속변인(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전체효과, 매개변인(자기지각 영역들)이 투입된 후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직접효과, 매개변인의 간접효과 등을 검증한다. 아울러 비모수적 bootstrapping 절차를 통해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여 간접효과를 조사하였는데,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www.kci.go.kr

결 과

측정변인에서 성차

연령을 통제한 후 삶의 만족도와 자기지각에서 성차를 분석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다($F(1,292)=6.39$, $p<.05$). 자기지각에 대한 MANOVA 분석 결과, 성차의 전반적인 효과는 유의하였고($F(5,283)=4.79$, $p<.001$), 학업 역량($F(1,287)=6.61$, $p<.05$), 운동 역량($F(1,287)=12.14$, $p<.01$), 신체적 외모($F(1,287)=10.14$, $p<.01$) 등 3개 자기지각 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점수가 낮았다(표 1).

측정변인들 간 상관

삶의 만족도와 5개 자기지각 영역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체적 외모가 삶의 만족도와 큰(large) 수준의 상관을 보였고

표 1. 삶의 만족도와 자기지각에 있어 남녀 차이

	전체 (N=295)	남 (n=138)	여 (n=157)	*F*
	평균(표준편차)			
삶의 만족도	19.17(4.28)	19.80(4.22)	18.44(4.25)	6.39*
자기지각				
학업 역량	15.78(3.29)	16.25(3.15)	15.25(3.38)	6.61*
사회적 역량	17.36(3.51)	17.62(3.21)	17.08(3.80)	1.32
운동 역량	15.83(3.47)	16.50(3.44)	15.08(3.34)	12.14**
신체적 외모	15.77(3.65)	16.43(3.48)	15.02(3.70)	10.14*
품행	17.07(2.69)	17.10(2.78)	17.04(2.59)	.01

** $p < .01$, * $p < .05$

표 2. 삶의 만족도와 자기지각 영역들 간 상관관계

	1	2	3	4	5
1. 삶의 만족도	-				
2. 학업 역량	.36*	-			
3. 사회적 역량	.37*	.27*	-		
4. 운동 역량	.30*	.26*	.38*	-	
5. 신체적 외모	.50*	.31*	.44*	.35*	
6. 품행	.46*	.45*	.38*	.23*	.38*

* $p < .001$

www.kci.go.kr

(r=.50, p<.001), 품행(r=.46, p<.001), 사회적 역량(r=.37, p<.001), 학업 역량(r=.36, p<.001), 운동 역량(r=.29, p<.001)은 중간(medium) 수준의 상관을 보였다(표 2).

성별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있어 자기지각의 매개효과

표 3과 표 4에 매개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연령을 통제한 후 성별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5개 자기지각 영역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다중 매개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2=.37, F(7,282)=23.76, p<.001). 종속변인(삶의 만족도)에 대한 독립변인(성별)의 영향을 보여주는 전체효과는 유의하였다(β=.30, p<.05). 매개변인인 자기지각 영역들 중 성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 영역은 학업 역량(β=.30, p<.05), 운동 역량(β=.40, p<.001), 신체적 외모였다(β=.37, p<.01). 즉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업, 운동, 외모에 대해 자신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였다. 자기지각 영역들 중 삶의 만족도를 유의하게 예측한 변인은 학업 역량(β=.11, p<.05), 신체적 외모(β=.30, p<.001), 품행이었다(β=.26, p<.001). Bootstrapping 기법을 통해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학업 역량(B=.03,

표 3. 성별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 대한 자기지각의 매개효과

	B	S.E.	β	t
독립변인 → 매개변인				
성별 → 학업 역량	.99	.38	.30	2.57*
성별 → 사회적 역량	.47	.41	.14	1.15
성별 → 운동 역량	1.40	.40	.40	3.48***
성별 → 신체적 외모	1.38	.42	.37	3.18**
성별 → 품행	.02	.32	.01	.07
매개변인 → 종속변인				
학업 역량 → 삶의 만족도	.14	.07	.11	1.12*
사회적 역량 → 삶의 만족도	.09	.07	.07	1.32
운동 역량 → 삶의 만족도	.07	.07	.06	1.04
신체적 외모 → 삶의 만족도	.35	.07	.30	5.34***
품행 → 삶의 만족도	.42	.09	.26	4.63***
독립변인 → 종속변인				
성별 → 삶의 만족도(전체효과)	1.26	.50	.29	2.52*
성별 → 삶의 만족도(직접효과)	.49	.42	.12	1.16

***p<.001, **p<.01, *p<.05.

B=비표준화 회귀계수; S.E., standard error

www.kci.go.kr

표 4. 간접효과 검증을 위한 Bootstrap 결과

	B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학업 역량	.03	.0001	.0875
사회적 역량	.01	-.0101	.0417
운동적 역량	.02	-.0220	.0768
신체적 외모	.11	.0388	.1971
품행	.00	-.0601	.665

B=비표준화 회귀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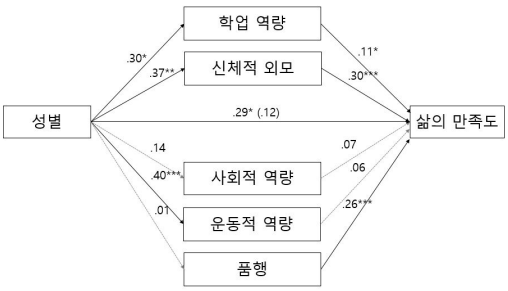

그림 1. 성별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자기지각의 매개효과

$^{***}p<.001$, $^{**}p<.01$, $^{*}p<.05$.

95% CI .0001-.09)과 신체적 외모(B=.11, 95% CI .04- .20})에서만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인 투입 후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을 보여주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학업 역량과 신체적 외모가 성별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논 의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에 접어든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와 자기지각에서 성차를 살펴보고, 남녀 간의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자기지각이 매개하는지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 여학생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남학생보다 낮게 나타난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혜영, 2012; 이상희, 2014; 이예은, 2013; 임영실, 2004). 본 연구와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할 때, 초기 청소년기에 접어든 여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는 같은 또래의 남학생에 비해 저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삶의 만족도가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 학업,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Gliman & Huebner, 2003; Park, 2004), 초기 청소년기 여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관리하는 개입이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여학생은 학업 역량, 운동 역량, 신체적 외모 등 3가지 자기지각 영역에서 남학생에 비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신체적 운동 능력과 외모에 대한 지각이 부정적이라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유안진 등, 2005; Shin & Shin, 2008). 본 연구와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할 때, 우리나라 초등학교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자신의 학업 및 운동 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신체상에 보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기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시기로,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인해 부모나 또래 등 주변인들로부터 신체적 외모에 대한 피드백에 보다 자주 노출될 수 있으며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신체상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김정민, 이세진, 2010; Dohnt & Tiggermann, 2005). 여성

www.kci.go.kr

의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사회적으로 부과된 이상적인 신체상과 청소년이 지각한 신체상 간의 괴리를 초래하여 신체적 외모에 대한 불만족을 야기할 수 있다. 학업 역량의 경우, 자녀의 역량에 대한 부모의 평가가 학업 역량에 대한 자녀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Hervert et al., 2005). 수학이나 과학 등 특정 과목의 학업 능력에 있어 부모나 교사와 같은 중요한 타인들이 여아 보다 남아의 학업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이대식, 김수미, 2003; Hervert et al., 2005). Tiedemann(2000)은 독일의 초등학교 3, 4학년의 자녀를 둔 부모 6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들이 자녀의 수학 능력에 대해 남아를 여아 보다 높게 평가하였는데, 남아가 여아보다 수학을 잘한다는 성 고정관념이 이러한 결과를 예측하였고 수학 능력에 대한 자녀의 지각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최근 연구에서도 수학 능력에 대한 부모의 성 고정관념이 여아의 수학 자기효능감 및 성취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수향 등, 2021). 부모의 성 고정관념이 자녀의 학업 능력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학업능력에 대한 자기지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자기지각 영역 중 학업 역량과 신체적 외모는 성별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 즉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자신의 학업능력과 신체적 외모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이러한 인식이 삶의 만족도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자기지각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들 중 하나이며(Forste & Moore, 2012; Palacois et al., 2015; Topaloglu, 2015), 특히 학업성취도와 신체상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어 왔다(김명자, 손은령, 2018; 유안진 등, 2005). 학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초등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박영아, 2011; Diseth et al., 2012), 주관적으로 지각한 신체상은 실제 체중보다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Tabak et al., 2007). 본 연구의 결과는 여자 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중요한 경험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양육자의 지지적 태도가 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해왔다(Antaramian et al., 2008; Suldo & Huebner, 2006).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개선시키는 개입에 있어 학업능력과 신체적 외모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을 탐색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전략을 적용하는 한편, 이 두 지각영역에서 부모의 지지적 태도를 높일 수 있는 부모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운동 역량은 삶의 만족도와 성별의 관계를 매개하지 못하였다.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들이 자신의 운동능력에 대해 남학생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지각이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한다. 여자 청소년에게 운동능력은 자신의 가치 평가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닐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의 선정에 있어 지역별 균등표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체상과 삶의 만족도가 문화의 영향을 받는 만큼, 다양한 지역의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참여자가 5-6학년 초등학생으로 보다 넓은 연령대의 청소년을 포함하지 못하였다. 본 연

www.kci.go.kr

구결과를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특성으로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의 성차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자기지각외의 다른 요인은 포함하지 않았다. 청소년기에 성차가 보고되어 온 우울증상 또는 성 고정관념 등 삶의 만족도의 성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강유진 (2008). 초등학생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학교요인의 스트레스 중재효과: 보호과정 및 취약과정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19(3), 57-84.

고혜영 (2012).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을 매개로 한 부모양육태도와 중학생의 생활만족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명자, 손은령 (2018). 청소년이 지각한 학업성취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9), 1-20.

김안나, 김효진 (2018).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이행기(초5-중2)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가족과 문화, 30(3), 70-94.

김정민, 이세진 (2010).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 신체질량지수 및 자아존중감이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 발달단계별 차이를 중심으로. 가정과삶의질연구, 27(6), 1-12.

박영아 (2011). 스트레스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초등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2(3), 32(3).

박영애 (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 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 초, 중, 고등학생의 생활만족도 차이와 형성 및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94-118.

백수진, 임영진 (2013). 친절한 청소년은 왜 행복한가?: 친절성, 사회적 지지 및 삶의 만족도의 관계. 청소년 상담연구, 21(2), 25-36.

손보영, 김수정, 박지아, 김양희 (2012). 바람직한 부모 양육태도가 초기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 적응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성차비교. 한국청소년연구, 23(1), 149-173.

신나영 (2006). 아동기 비만과 자존감 및 우울의 관계: 신체상 매개모델 검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은모, 최효식 (2022). 부모의 양육스타일, 학업성취압력이 초등학생의 학교적응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율성, 학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검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4), 313-328.

유안진, 이점숙, 김정민 (2005). 신체상, 부모와 또래애착, 탄력성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가정과삶의질연구, 23(5), 123-132.

이대식, 김수미 (2003). 수학학습에서의 성차에 대한 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의 인식조사. 초등교육연구, 16(1), 297-315.

이명경, 이현지 (2011). 소아 청소년 우울 장애

www.kci.go.kr

의 인지적 특성 연구: K-WISC-III 일반 지능 집단을 중심으로. 교육치료연구, 3(2), 85-95.

이상희 (2013).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 지각과 자아 탄력성이 아동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수향, 이현지, 봉미미 (2021). 부모의 수학성 고정관념, 고정 마인드셋, 기대에 의한 초등 자녀의 수학 학습동기와 성취도 예측. 한국교육학연구(구 안암교육학연구), 27(4), 159-180.

이예은 (2013). 성별에 따른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영실 (2004). 청소년의 긍정적 자기지각과 주관적 안녕감 및 귀인성향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선정, 임영진 (2015). 부정적 신체상과 우울증상의 관계: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조절효과. 교육치료연구, 7(3), 519-529.

정지영, 정혜원 (2022). 부모의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가 초등학생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4), 839-854.

조성연, 김 민, 김혜원 (2011). 부모와 초등학생이 지각한 공부압력, 성공압력과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 및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1), 47-67.

조형정, 윤지영 (2015). 초등 고학년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4(1), 157-187.

Burnett, P. C. (1996). Gender and grade differences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descriptive and evaluative self-statements and self-esteem.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17*(2), 159-170.

Danielsen, A. G., Samdal, O., Hetland, J., & Wold, B. (2009). School-related social support and students' perceive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02*(4), 303-320.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Diseth, A., Danielsen, A. G., & Samdal, O. (2012). A path analysis of basic need support, self-efficacy, achievement goals, life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level among secondary school students. *Educational Psychology*, *32*(3), 335-354.

Dohnt, H. K., & Tiggemann, M. (2005). Peer influences on body dissatisfaction and dieting awareness in young girl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3*(1), 103-116.

Forste, R., & Moore, E. (2012). Adolescent obesity and life satisfaction: Perceptions of self, peers, family, and school. *Economics & Human Biology*, *10*(4), 385-394.

Gadermann, A. M., Schonert-Reichl, K. A., & Zumbo, B. D. (2010). Investigating validity evidence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adapted for children. *Social Indicators Research, 96*(2), 229-247.

Gentile, B., Grabe, S., Dolan-Pascoe, B., Twenge, J. M., Wells, B. E., & Maitino, A. (2009). Gender differences in domain-specific self-esteem: A meta-analysi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3*(1), 34-45.

www.kci.go.kr

Gilman, R., & Huebner, S. (2003). A review of life satisfaction research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18*(2), 192-205.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1), 87-97.

Herbert, J., & Stipek, D. (2005). The emergence of gender differences in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academic competence.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6(3), 276-295.

Jin, B. K., & Ahn, H. Y. (2019). Factors influencing the happiness of late school-aged children: A focus on family strength and self-control.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5*(3), 245.

King, A. L. D., Huebner, S., Suldo, S. M., & Valois, R. F. (2006). An ecological view of school satisfaction in adolescence: Linkages between social support and behavior problems.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1*(3-4), 279-295.

Leung, J. P., & Leung, K. (1992). Life satisfaction, self-concept, and relationship with parents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6), 653-665.

Lew, D., Xian, H., Qian, Z., & Vaughn, M. G. (2019). Examin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alcohol, tobacco and marijuana use among school-aged children. *Journal of Public Health, 41*(2), 346-353.

Lim, Y. (2015).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Adapted for Children. *Canadi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0*(3), 246-251.

MaÔano, C., Ninot, G., & Bilard, J. (2004). Age and gender effects on global self-esteem and physical self-perception in adolescents. *European Physical Education Review*, *10*(1), 53-69.

Palacios, E. G., Echaniz, I. E., Fernández, A. R., & De Barrón, I. C. O. (2015). Pers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with life in adolescence, youth and adulthood. *Psicothema*, *27*(1), 52-58.

Park, N. (2004). The role of subjective well-being in positive youth development.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91*(1), 25-39.

Preacher, K. J., & Hayes, A. F. (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3), 879-891.

Rodríguez-Fernández, A., Ramos-Díaz, E., Ros, I., Fernández-Zabala, A., & Revuelta, L. (2016). Subjective well-being in adolescence: the role of resilience, self-concept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Suma Psicológica, 23*(1), 60-69.

Shin, N., & Shin, M. (2008). Body dissatisfaction, self-esteem, and depression in obese Korean children. *The Journal of Pediatrics, 152*(4), 502-506.

Suldo, S. M., & Huebner, E. S. (2006). Characteristics of very happy youth. *Social Indicators Research, 78*, 179-203.

Tabak, I., Mazur, J., Oblacińska, A., & Jodkowska, M. (2007). Body mass,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in adolescents aged 13-15 years. *Medycyna Wieku Rozwojowego*, *11*(3), 281-290.

Terry, T., & Scott Huebner, E. (1995). The

www.kci.go.kr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life satisfaction in children. *Social Indicators Research, 35,* 39-52.

Tiedemann, J. (2000). Parents' gender stereotypes and teachers' beliefs as predictors of children's concept of their mathematical ability in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2*(1), 144.

Topaloglu, A. O.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udents' self perception, life satisfaction and various variable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205*, 349-355.

Valois, R. F., Zullig, K. J., Huebner, E. S., & Drane, J. W. (2001).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violent behaviors among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Health Behavior, 25*(4), 353-366.

Valois, R. F., Zullig, K. J., Huebner, E. S., Kammermann, S. K., & Drane, J. W. (2002). Association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sexual risk-taking behavior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1*(4), 427-440.

Wong, S. S., & Lim, T. (2009). Hope versus optimism in Singaporean adolescents: Contributions to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6*(5), 648-652.

Zullig, K. J., Valois, R. F., Huebner, E. S., Oeltmann, J. E., & Drane, J. W. (2001).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life satisfaction and adolescents' substance abus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9*(4), 279-288.

1차원고접수 : 2023. 08. 12.
심사통과접수 : 2023. 09. 25.
최종원고접수 : 2023. 10. 15.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23, Vol. 28, No. 3, 301-313

The Mediation Effect of Self Percep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and Life Satisfaction

Na Young Shin

Kyonggi University

It has been reported gender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and self-perception of adolescents. However, few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mechanism underlying the gender difference in life satisfaction.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on effect of self-percep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and life satisfaction in early adolescence.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for Children(SWLS-C) and Harter's Self 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scale(H-SPPC) were administered to 157 boys and 138 girls in the 5th and 6th grades of elementary school. It was found that girls showed a significantly lower scores in life satisfaction and 3 dimensions of self-perception(academic competence, physical appearance, and athletic competence) than boys. Academic competence and physical appearance perfec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and life satisfac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girls in early adolescence may less satisfied in their lives due to negative perception of their academic ability and physical appearance, compared to boys.

Key words : Adolescent, Gender, Life Satisfaction, Academic competence, Physical Appearance

www.kci.go.kr